

「가락국기」의 거북노래 어석

권 재 선*

< 목 차 >

- I. 서
- II. 이미 행하여진 여러 가지 어석
 - 1. 직역적 어석
 - 2. 일본 고대지명에 대응시킨 어석
 - 3. 신화(神話)의 내용에 대응시킨 어석
 - 4. 공통적인 고어형태의 추정에 의한 어석
- III. 구지붕과 '거북노래'의 새로운 해석
 - 1. '龜背'의 어원
 - 2.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문체 고찰
 - 3.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원노랫말 재구
- IV. 가화(歌話)의 비교
- V. 결

<Abstract>

A Linguistic Interpretation on the 'Song of a Turtle' in the *garakkukki*

Kwon, Jae-sun

This paper aims to correct an accepted interpretation on the 'Song of a Turtle' in the history of the country named Garak in the *Samguk-yusa*. Many scholars hold that the song is a mythological story. That kind of view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turtle is a god or a symbol of a god. Ji-hong Park attempts to prove the turtle to be a 'kəm' meaning a god,

* 전 대구대 교수

taking 'kami' from a folk song of a spider.

But the present study tries to construe the song linguistically. First we demonstrate that Park's interpretation on the song of a spider is mistaken. And then we compare the 'Song of a Turtle' with the 'Song of the Sea' in the *Samguk-yusa*, and approach it in linguistic terms.

I. 서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실려 있는 '구지붕'과 '거북 노래'에 대해서는 국사학, 고전문학, 국어학, 민속학, 인류학 등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발표하였다.

'구지붕'과 '거북노래'는 원래 우리말로 된 것인데 당시에는 우리말을 적는 소리글자가 없었으므로 한자(漢字)의 소리와 뜻을 빌어 표기한 것이다. 이 차자표기는 한자의 소리를 이용하고 뜻을 이용하는데 정해진 일정한 규칙이 없으므로 표기된 한자가 소리로 표기된 것인지 뜻으로 표기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또 그 때의 말이 현대어와는 다른 점도 많았기 때문에 더욱 더 그것을 이해하는데 힘이 들며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구지붕'과 '거북노래'를 연구하는 모든 분야의 연구는 '구지붕'과 '거북노래'의 어석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들의 어석은 필요하고도 선결적인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이 "구지붕"과 "거북노래"를 국어학의 분야로 연구하며 특히 어석(語釋)을 목적으로 한다.

'구지붕'과 '거북노래'의 어석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되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 다음 같은 것이 있으며 또 ⑤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① 직역적(直譯的) 어석
- ② 신화(神話)의 내용에 대응시킨 어석
- ③ 일본 고대지명(古代地名)에 대응시킨 어석
- ④ 공통적인 고어형태(古語形態)의 추정에 의한 어석

⑤ 차자표기(借字表記)의 어휘 표기법과 문체적(文體的) 특징에 의거한 어석 본고에서는 ⑤의 방법으로 어석을 하고자 한다.

「龜旨峯」은 「검믈」(양주동, 박지홍)로 읽기도 하나 필자는 「龜旨」를 한자의 차음표기(借音表記)로 보고 「구지-봉」으로 읽기로 한다.

노래의 이름으로는 가락국기의 건국신화에 삽입된 노래를 「龜旨曲」(徐臣正, 辺德珍), 「龜旨歌」(趙潤濟, 梁濂奎, 朴智弘), 「迎神君歌」(梁柱東), 「龜旨峯迎神歌」(金東旭), 「迎神歌」(李秉岐), 「龜何歌」(李家源, 黃湏江), 「龜何龜何의 歌」(上田杏村) 등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으나¹⁾ 이 노래는 원래 우리말의 노래이므로 그 이름도 우리말로 지음이 마땅하므로 본고에서는 수로부인의 「海歌」와 함께 각각 「거북노래」와 「바다노래」로 부르기로 한다.

II. 이미 행하여진 여러 가지 어석

이미 행하여진 어석들을 살펴보면 다음 같은 것이 있다.

1. 지역적 어석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제1차적 어석으로는 「龜」와 「首」를 「거북」과 「머리」로 직역하되 제 2차적 해석으로서 그 「거북」(龜)과 「머리」(首)가 「駕洛國記」의 설화 속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신화적, 민속적, 인류학적 다양한 해석을 하면서 「거북」(龜)을 토탱²⁾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며 「머리」(首)는 임금으로 보기도 하고³⁾ 목은 생명의 근원인데, 특히 거북의 목(龜頭)은 외관상 남근(男根)과 흡사하므로 남근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燐灼」(지지고 굽음)이란 말은 불과 관계가 있으므로 욕정이 깊은 여자 성기의 은유로도 보았다.⁴⁾

1) 楊熙喆, 「『駕洛國記』의 「龜旨曲」과 建國神話 研究」 P. 83

辺德珍, 「龜旨曲에 對하여」 PP. 89~90

2) 金學成(1980), 「古代出産發儀의 一類型」

3) 黃湏江(1965), 「龜何歌攷」, PP. 317~319

4) 鄭병욱(1981), 「한국고전시가론」, PP. 49~51

이 밖에도 다양한 해석을 하였다.

2. 일본 고대지명에 대응시킨 어석

일본 사학자 김택장삼랑(金澤庄三郎)은 그의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서 「Sopori」(徐伐/新羅)에 크다는 한국 고대어 「Ku-」를 접두시켜 「Ku-sopori」(大新羅)가 되고 이 낱말이 생략되어 「Kusopori > Kuso / Kusu / Kusi > Ku」 등의 말이 생기고 또 변하여 「Kaso, Kasu, Kasi」 등이 이루어졌는데 이들 「Kusi」계 지명을 한국 지명에서도 예를 들고 일본에서 산명, 지명, 인명, 종족명 등 다양하게 사용된 많은 예를 들고 이들 말이 삼한(三韓)의 옛 지명과 연관이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⁵⁾ 그 뒤 한국의 사가 중에는 가야의 수로왕이 내려온 김해의 「구지봉」(龜旨峯)과 日本書紀의 신대사(神代史)에 나오는 일본의 niniki왕이 내린 구주의 [kusipuru](槌觸)의 대응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윤석호는 이러한 대응관계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고지」계 지명을 들어 보이며서 「龜旨」는 뜻을 표기한 것이 아니고 「고지」계 지명의 소리를 적은 것이라고 다음처럼 설명하였다.⁶⁾

이 「くじ」「くし」를 “kus”라고 해석하지 않는다. 한국 고지명에 「串」, 「岬」 또는 「加西」, 「古戸」, 「古斯」, 「嘉瑟」 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kochi”, “koji”, “kashi”와 같은 계통의 말에 해당한다. 돌출해 나온 지형에 붙인 말로써 「くじふる」峯이라고 통한다. 여하간 「くしふる」는 한국어이다.

3. 신화(神話)의 내용에 대응시킨 어석

「龜旨峯」과 「거북노래」가 실린 「三國遺事」의 「駕洛國記」의 기사가 신화(神話)이므로 「龜旨峯」의 「龜」와 「거북노래」의 「龜」를 신화에 맞춰 「神」으로 해석하려는 견해가 일찍부터 대두되었다.

5) 金澤庄三郎(1929), 「日鮮同祖論」, PP. 231~249

6) 윤석호(1990), 「伽耶史」, P. 133~ 주 17)

양주동은 그의 「조선고가연구」에서 「龜旨峯」을 다음처럼 해석하였다.

北龜旨(뒤스거북믈 「뒷검믈」)<梁柱東, 「古歌研究」 P. 8>

「北龜旨」를 '뒤스거북믈'라 하고는 다시 「뒷검믈」라 하였다. 「뒤」는 「北」에 대응하는 말이고 「스」은 사이소리이다. 「검」과 「믈」은 다음처럼 해석하였다.

旨(믈)<위의 책 P. 8>

「믈」은 「외」의 一別形으로 「마루·모로」 등으로 互轉된다.<위의 책 P. 70>

「검」은 「감·검·곰·금」으로 互轉되는 「神」의 古語 …….<위의 책 P. 8>

「뒤스거북믈」의 「거북」(龜)을 「뒷검믈」에서 「검」(神)으로 하여 龜旨峯의 「龜」를 「神」으로 해석하였으며 「旨」는 「믈」(山峯)로 해석하였다.

양주동의 이러한 신화(神話)의 내용에 대응시킨 어석은 구체적인 설명과 해설이 없어 암시에 그쳤다.

박지홍은 그의 「龜旨歌 研究」에서 「龜旨峯」과 「거북노래」를 가락국기의 건국신화의 그 신화적 내용에 대응시킨 구체적인 어석을 하였다. 박지홍 어석의 핵심적인 주장은 「龜旨峯」의 「龜」와 거북노래의 「龜」가 「검」(神)의 향찰(鄕札)이라는 것이다.

「龜」를 「神」으로 보는 근거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

① 「거북노래」는 駕洛國 建國神話에 나오는 祭儀에 사용한 呪文이므로 그 대상인 「龜」는 「神」이다.

이는 駕洛國 建國神話의 一部 ……龜旨歌는 原始文字의 하나의 典型인 呪文으로 보아지며 ……<「龜旨歌 研究」 P. 528>

首露王이 등극하는데 거북더러 머리를 내어 놓으라 할 필요가 없다.<위의 논문 P. 532>

② 「바다노래」는 「거북노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괴물에 잡혀간 부인을 구출하려는 주문인데 그 대상인 「龜」는 「神」이다.

이 海歌詞와 龜旨歌는 傳說로 보아서는 그리 符合되지 않으나 歌詞는 크게 符合한다.<위의 논문, P. 531>

더구나 海龍에게 납치되어 간 水路夫人을 거북더러 내어 놓으란 말은 …… 곧 水神에게 잡혀간 것이다. 곧 검(神)에게 잡혀간 것이다.<위의 논문 P. 532>

그리고 「龜」가 「검」(神)의 향찰(鄉札)임은 다음 두 가지로써 증명하였다.

(1) 언어론적(言語論的)인 증명

① 일본어와의 비교

龜는 日本語에서는 kame이니, 日語와 견주어 보면 더욱 明確해진다. 곧 龜는 검(神) 곰(熊) 거미(蛛) kami(神) kuma(熊) kumo(蛛) 등과 같이 검다(幽, 玄)의 語根 “검, 굶”의 派生語로 神의 鄉札이다.<앞에 든 글, P. 532>

② 「-m > -P」의 음운변화

거품도 검게 접미어 “음”이 붙어 생긴 검과 同意의 派生語인 것이다. 그리고 검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변천을 겪은 것 같다.

* kəm(검) > kənum(거품) > kəpup(거북)<위에 든 글 P. 532>

(2) 민요(民謠)에 의한 증명

영남민요 「거미노래」의 「거미」와 「미리국」의 「미리」를 「神」과 「龍」으로 보고 그 내용은 해석해서 「거미노래」가 삼국유사의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와의 내용이 매우 닮았으므로 이 「거미노래」를 가지고 「거북노래」의 「거북」이 「검」(神)임을 증명하였다.

(3) 「龍」(미르)에 의한 간접 증명

「龍」(미르)을 水神(물검)으로 보면서 「龜」를 「검」(神)임을 증명하였다. 龜는 “검, 굶”의 鄉札이다. ……

首露王이 등극하는데 거북더러 머리를 내어 놓으라 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海龍에게 납치되어간 水路夫人을 거북더러 내어 놓으란 말은 더욱 그러하다. 이것은 어떻게 달리 解釋해야 한다. 水路는 물(龍)에 빠진 것이다. 곧 水神에게 잡혀간 것이다. 큰 검(神)에게 잡혀간 것이다.(P. 532)

박지홍은 ‘거북노래’와 ‘거미노래’는 다음처럼 비교하였다. ‘거미노래’에 ()를 한 것은 ‘거미노래’에 더 보태어진 내용을 보인다.

<거북노래>	<거미노래>
龜何龜何	거미야 거미야(왕거미야)
	(晉州나 德山 왕거미야)
	(네 天龍 내 활랑)
	(靑雲산 청바우)
首其現也	
若不現也	
燐灼而喫	미리국 미리국
	(두덩실 두덩실 왕거미야)

‘거미노래’가 민속에서 축귀(逐鬼)에 쓰이는 것을 고려하여 「거미」를 「신(神)」의 우리말로 해석하고 「미리국」을 「거북노래」의 「燐灼而喫(굽고 지져 먹는다)」에 대응시켜 「미리(龍)의 국」 곧 「龍湯」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거미노래’와 대응되는 내용으로 보아 ‘거북노래’의 「龜」는 「거미」(神)로 해석하고 이들 노래가 일정한 땅에서 잡귀(雜鬼)를 몰아내는 노래로 보아 「首」(마리)를 「峯」(머리)로 해석하여 전체적으로 龜旨峯을 점거하고 있는 잡신을 몰아내는 주문으로 보고 ‘거북노래’를 다음처럼 해석하였다.

龜何龜何	검하 검하 山神아
首其現也	머리를 龜旨峯을 내어 놓고 떠나라
若不現也	만일에 내어놓고 떠나지 않으면
燐灼而喫	너를 꾸워서 먹어 버리겠다.

이러한 ‘거미노래’의 해석에 의하여 ‘거북노래’의 「龜」는 「검」(神)이며 ‘거북노래’는 잡귀를 몰아내는 주문으로 보고 ‘거미노래’는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았다.

그런데 ‘거미노래’는 박지홍의 이러한 해석과 다르게 해석되며 ‘거미노래’의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유도한 결과로 이루어진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거미노래’를 「검」(神)과 「미리」(龍)를 물리치는 축귀(逐鬼)의 뜻으로 해석을 유도한 것으로는 다음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의도한 것에 맞게 한자(漢字)를 기입(記入)함.

‘거미노래’는 구전되어 온 것으로 그 소리대로 적으면 (A)와 같은 것인데 (B)의 ①, ②, ④, ⑤처럼 의도하는 바에 맞게 다음처럼 한자(漢字)를 기입하였다.

(A)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진주^① 덕산^② 왕거미야
네^③ 천룡^④ 내 활랑
청음산에 청^⑤바우
미리국 미리국
두덩실 두덩실 왕거미야

(B)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晉州^① 德山^② 왕거미야
네^③ 天龍^④ 내 활랑
청음산에 靑^⑤바우
미리국 미리국
두덩실 두덩실 왕거미야

박지홍의 ‘龜旨歌 研究’라는 논문에 ‘미리국 = 龍湯(筆者註), (漢字는 筆者가 記入)’이라는 주를 붙여 놓았다.

박지홍이 인용한 노래에서는 ③은 「네」(汝)로 되어 있으나 경상도 방언은 「니」(汝)이니 한자 기입에서 ①과 ②는 지명이므로 지명에 근거했으며 ⑤의 「靑바우」는 「靑石」이란 말이 있으므로 「靑石바우」의 말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④의 「天龍」은 해석이 부당하다. 「天龍」은 불경(佛經)에 있는 말로 佛法을 보호하는 하늘에 있는 용이다. 용(龍)은 있는 장소에 따라 바다에 있는 용은 「海龍」, 못에 있는 용은 「地龍」이라 한다.

산에 있는 용은 「吉吊」와 「蛟」가 있다.

吉吊生嶺南 龍每生二卵 一爲吉吊 蛇頭鬼身 水宿亦木棲(本草綱目)
 蛟乃龍屬 其肩交生故謂之蛟 ……(本草綱目)
 閩中 不時暴雨 山水驟發 漂沒室廬 土人謂之出蛟 太凡蛟屬 藏山穴中 歲久變
 化 必挾風雨以出 或成龍或入海 (五親祖)

이것들이 山에 사는 경우에 「山龍」이라고는 불려질지언정 「天龍」으로 불려
 질리 없고 더욱이 아직 웅은 龍으로도 불려지지 않는 것들이니 더욱 天龍으로
 불려질 리 없다.

③ 「미리국」은 「龍湯」으로 해석할 수 없음

민요의 「천용」을 「天龍」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천용」은 「龍」(미리)이 아
 니니 「미리국」을 「미리」(龍)-「국」(湯)이라 할 수 없다.

③ 「거미」를 「거미」(神)로 해석함

경상도 방언에서 호격조사 「-야」, 명사의 결합은 다음과 같다.

③ 사람 이름과의 결합

(자음 아래 ~아)	(모음 아래 ~야)
돌-아 순-아	철수-아(x) 호-아(x)
돌-이야 순-이야	철수-야 호-야

③ 사람 이름 외의 다른 명사와의 결합

(자음 아래 ~아)	(모음 아래 ~야)
범-아 구신(鬼神)-아 고래-아(x) 거무-아(x) 까치-아(x)	
범-이야(x) 구신(鬼神)-이야(x) 고래-야 거무-야 가치-야	

따라서 「거미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므로 「검-이야」가 아니고 「거미-야」
 로 분석된다. 따라서 「거미야」는 「거미」에 호격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그 형태로 보아 「神」의 우리말이 아니다. 「神」의 우리말은 「검」(神)이다.

神[신] 天 — 引出萬物者 검……(崔南善, 新字典 三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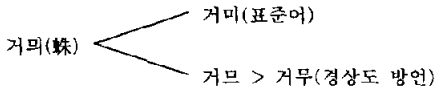
검(名) 신, 귀신 (文世榮, 우리말 辭典)

「거미」는 고어 「거미」(蛛)의 현대어 형태이다.

거미 줄이 얼것고(封蛛網)<杜초 一4>

거미 디(蜘蛛)<字會上 21>

거미 디(蜘蛛), 거미 듀(蛛)<類會上 16>



경상도 방언에는 현재 「거름, 거무」의 형태로 변했다. 그것은 「거미」의 둘째 음절의 「의」모음이 「으 > 우」로 변한 때문인데 「의」모음은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경상도 방언에서 「의 > 이」로 변한 것도 많다.

이괴다 > 이기다

디켜다 > 지키다

경상도 방언에서도 「거름」(蛛)의 변이형태로서 「거미」의 형태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거미노래」의 「거미」는 「거미」(蛛)이겠다. 그리고 「거미노래」의 내용으로 봐서 「거미」가 「요괴」(妖怪)로 해석되더라도 「거미」는 「거미」(蛛)이다. 경상도 민담(民譚)에 산의 바위틈에 개만큼 큰 「거미」(蛛)가 있어 사람을 잡아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것은 요괴 이야기인데 사람을 해친다는 천년 묵은 커다란 「지네, 뱀」의 요괴 이야기와 같은 것이다. 요괴로서의 큰 거미를 「왕거미」라 한 것이겠다.

위와 같이 박지홍의 「구지가 연구(1957)」의 「거미노래」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면 새로운 해석이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거미노래」의 핵심어휘는 「거미」, 「천용」, 「미리국」이다. 필자는 「거미」는 「거미(蛛)」이고 요괴로서의 큰 거미를 「왕거미」라 한 것으로 보았다. 「천용」은 「니(네) 천용 내 활랑」이라 하여 「활랑」에 대립된 대상인 점과 「활랑」은 가사의 내용상 요괴나 귀신을 물리치는 무당일 것

이라는 점으로 보면 ‘천용’은 ‘賤妖’(천요)<천한 요괴> 또는 ‘賤庸’(천용)<천하고 용렬한 것> 등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소리로 보아서는 ‘賤庸’이 더 합당하나 그러나 무당(巫堂)의 대상이라는 점으로 보면 ‘賤妖’(천요)가 더 적합하다. ‘천용’은 ‘천요(賤妖)’의 어말에 ‘ㅇ」[ŋ] 소리가 첨가된 것인데 명사 어말에 ‘ㅇ」 소리가 첨가된 예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짜(地)<解例·合字>	→ 땅
집우(屋上)	→ 지붕(집우)
입우(口上)	→ 입웅(口蓋)

‘활랑’은 ‘弓手(활 쏘는 사람)’라는 뜻을 지나 그 어원은 ‘閑良’(한량)<무과를 준비하는 사람 → 활 잘 쏘는 사람>에 있다. 「활랑」으로 된 것은 「한」(閑)이 「활」(弓)에 동음색인된 것이다.

이 노래에서 「활랑」이 무당이라면 무당의 별칭 「화랭이」의 원래 말 「화랑(花郎)」이 「활랑」으로 바뀐 것이라 하겠다. 「화랑」(무당)은 칼을 사용하고 「활랑」(궁수(弓手))은 활을 사용하는데 같은 무기의 사용자라는 점과 소리가 비슷해서 혼동하여 변한 것으로 보겠다. 곧 「천용」과 「활랑」의 변화는 다음과 같겠다.

천요(賤妖)	화랑(무당)
천용	활랑

「미리국」은 「거미노래」의 가사의 내용을 보면 「晉州 德山」에 있던 왕거미 곧 천용(요괴)이 「청용산 청바우」로 쫓겨나게 된다. 그 쫓겨나는 것에 관련되는 말이다. 그러한 점으로 보면 「미리국」은 「未來國」이다. 곧 「청용산 청바우」는 너의 「未來國」이라는 뜻이다.

「래」(來)의 소리는 경상도 방언에서 다음처럼 두 가지로 발음된다.

① 「ㅣ」모음을 가진 음절과 연결해서 「ㅣ」모음 동화를 이룰 때는 「ㅣ」로 발음됨

來日(러일) > 니일(경상도 방언)

② 「ㅣ」모음을 가진 음절과 연결하지 않을 때는 「ㅍ」로 발음됨

來年(러년) > 내년(경상도 방언)

그러므로 「未來國(미리국)」은 「ㅣ」모음 순행동화를 해서 「미리국」으로 되겠다. 이러한 낱말 해석에 의하여 '거미노래'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거미야 거미야 왕거미야	거미(蛛)야 거미야 왕거미야
진주 덕산 왕거미야	晉州 德山 왕거미야
니 천용 내 활용	너는 賤妖(요괴)이고 나는 화랑(무당)이다.
	<나는 너를 쫓아 낼 것이니>
청용산에 청바우	청용산에 청바우가
미리국 미리국	나의 未來國이야 未來國이야
두덩실 두덩실 왕거미야	(두덩실 두덩실) 왕거미야

* '두덩실 두덩실'은 장구소리 삽입으로 보임.

** < > 안의 말은 숨은 뜻을 보인 것임.

'거미노래'는 다른 문헌 자료나 고기록의 해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꼭히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龜旨歌 研究(1957)』의 해석도 객관적으로 바른 해석이라고 입증할 수 없고 그것보다 다른 해석도 가능하므로 그 해석에 의하여 「龜」를 「검」(神)으로 입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4. 공통적인 고어형태의 추정에 의한 어석

변덕진의 「龜旨曲에 對하여」에서는 신화적(神話的), 민속학적(民俗學的) 고찰

에서 벗어나시 주로 고대지명(古代地名) 표기의 해독에 근거를 둔 국어학적 방법에 의거하였다. 그의 연구 경향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국어학적 고찰

- ㉠ 어휘의 해독과 고대어 추정을 지명 고찰을 통하여 입증하려고 하였다.
- ㉡ 고대어 한자를 h가 k로 실현된다는 음운 견해에 의거하였다.
- ㉢ 호적조사 「何」(가)와 종결어미 「也」(라) 등 고대국어의 이두표기 글자의 해독에 대한 자기 견해를 주장하였다.

② 율격(律格) 고찰

- ㉤ 한자로 표기된 ‘거북노래’를 한시의 율격(律格)<平仄>을 검토하여 한시가 아님을 밝혔다.
- ㉥ 한국 민요의 정형성(定型性)을 논하고 ‘거북노래’를 3·3조로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어학적 방법에 의하여 연구하면서도 해독의 방향은 「가락국기」의 신화적, 역사적 사실에 의도적으로 맞추려고 하였다. 그래서 변덕진은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가사와 그 가화에 대해서 다음처럼 서로 공통된다는 전제에서 연구를 행하고 있다.

① ‘거북노래’와 ‘바다노래’는 같은 노래이므로 다음 사항들이 서로 같다.

- ㉠ 노래 가사는 서로 대응되는 부분은 표기된 한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다.
- ㉡ 가화(歌話)의 핵심되는 말도 표기된 한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다.
- ② 가락국에 관련된 말은 표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다.
 - ㉠ ‘駕落, 龜旨, 金海’는 표기된 한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다.
 - ㉡ ‘金卵, 許’ 등은 표기된 한자가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다.

그는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 비교를 하고 있다. 오른쪽 것이 공통하는 것이다.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공통되는 점을 다음처럼 지적하였다.

① 시계(時季)

龜旨歌 ~ 三月
海歌詞 ~ 躑躑花盛開 } 봄

② 장소

龜旨歌 ~ 냇가
海歌詞 ~ 바닷가 } 물가의 언덕

③ 위치명

龜旨歌 ~ 駕洛의 龜旨(金海)
* 金海의 별호 「臨海」 } [k ~ r ~]의 음운형태
海歌詞 ~ 바닷가의 「臨海亭」 }

* 駕洛[kere] ~ 臨(大의 뜻)[kir]

④ 주인공

龜旨歌 ~ 首露
海歌詞 ~ 水路 } [m ~ r ~]의 음운형태
* 首[mərə] ~ 水路[mini]

그래서 그는 지명 해독을 증거로 하여 다른 한자로 표기된 여러 어휘의 공통적인 고어형태(古語形態)를 추정하여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가사와 그 가화를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가 추정한 공통적인 고어형태는 다음과 같다.

駕洛(kara) ~ 龜(ker/kur) ~ 海(kere) ~ 龍(kur/ker)
首(mərə) ~ 山(moro) ~ 旨(mere/moro) ~ 歌(mori)
* 歌(mori)는 ‘자진-모리, 휘-모리, 옛-모리’의 ‘모리’
首路(mere) ~ 水路(mal/muri)
龜旨(kere) ~ 駕洛王(kara-məri) ~ 海歌(kere-mori)
金卵(k ~ r ~) ~ 許(ka/ko)

이러한 해석에 의하여 ‘거북노래’를 다음처럼 재구하였다.

ㄹ라가 ㄹ라가
 ㄹ라ㄹ 나다라
 ㄹ다가 안나라
 굽어서 먹노라

그런데 이 논문의 공통적인 고어형태의 추정에는 다음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① 고어형태의 추정이 거의 다가 명시적인 이표기(異表記)의 대응 자료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같은 낱말의 이표기는 ‘一作, 一云, 或云’ 등으로 주석을 붙였거나 또는 ‘고쳤다(改)’는 설명이 있어서 같은 낱말의 이표기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런 이표기를 근거로 우리말의 고어형태를 해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논문의 우리말의 고어형태의 추정은 거의 다가 이런 명시적인 이표기의 자료가 아니어서 추정된 고어형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겨진다.

②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어휘들을 「가라」(駕洛)의 건국설화의 핵심 요소인 「kara」(駕洛)와 「mari」(苜長)의 두 낱말에 관련지어 같은 낱말 형태로 추정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③ 한자음이 고대동음(古代東音)에서 모든 [h]음이 [k]로 실현된 것으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특히 「거북노래」가 어느 시대에 채록되었으며 그 시대에 국어에는 [h]음이 없고 [k]음만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거북노래」의 호격조사를 「가」로 재구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III. 구지봉과 ‘거북노래’의 새로운 해석

1. ‘龜旨’의 어원

‘龜旨峯’은 마을 이름도 들판 이름도 아니고 산봉우리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龜旨-峯’으로 분석되고 ‘龜旨’가 산봉우리의 고유명이다.

차자표기(借字表記)의 해독은 다음과 같은 해독법에 따라 해독하여야 한다.

① 뜻빌림(訓借)

차자표기에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빌어적은 것이다.

- ㉠ 문헌 기록에 한 낱말에 대해서 둘 이상의 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 하나는 뜻으로 읽고 다른 것은 소리로 읽어 서로 대응하는 경우 뜻으로 읽히는 것은 뜻을 빌어 표기한 것이다.
- ㉡ 문헌 기록에 다른 표기가 없더라도 차자표기의 글자 중 뜻으로 해석되는 다른 이름이 입으로 전해져 오는 경우는 입으로 전하는 것처럼 뜻을 빌어 표기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 竹旨(亦作 竹曼 亦名 智官)<삼국유사, 죽지랑>

뜻과 소리가 대응되는 것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竹曼(竹만)

|

竹旨

|

智官(디관)

☆ 「智」의 소리는 東音에는 「지」로 전하고 있으나

「智」 같그렌 tie

周法高 hi

이므로 고대어는 「디」로도 받아 드렸을 것이다.

곧 「旨(마릭) : 만(만)」, 「竹(대) : 지(디)」로 대응된다.

그런데 「竹」은 우리말이 「대」이다. 그러므로 뜻읽음 「竹」(대)와 소리읽음 智(디)가 서로 대응된다.

「湄」는 현대의 지명에서 「마루」로 읽히고 있다.

長湄里(경기, 광주) 긴마루

中湄洞(경북, 안동) 중마루

그러므로 뜻읽음 「湄」(마루)와 소리읽음 「蔓」(만)이 서로 대응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면 「竹湄」는 「대막」로 해독된다.

② 소리빌음(音借)

차자표기 가운데 다음같은 경우는 그 소리를 빌어 적은 것이다.

㉠ 문헌기록에 한 낱말에 대해서 둘 이상의 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 같은 소리의 글자나 비슷한 소리의 글자로 대응되는 때는 한자의 소리를 빌어 적은 것이다.

㉡ 문헌기록에 전하는 차자표기가 한 가지의 글자로 된 표기뿐이고 옛부터 입으로 전하는 이름도 한 가지뿐일 때는 그 차자표기는 소리를 빌어 적은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 ㉠ 加羅, 駕洛, 加耶 ㉡ 馬韓

「龜旨峯」의 다른 표기는 다음 같은 것이 있다.

① 龜旨峯(「삼국유사」 가락국기, 모든 「지리서」)

② 龜旨山(嶠南誌 五十一, 陸墓)

③ 龜峯(「삼국사기」 열전, 김유신 一)

④ 龜岳, 龜頭(嶠南誌 五十一, 陸墓, 正祖御製祭文)

* (正祖御製祭文) 氣鍾龜岳 地分鷄林 燁如神人 自天儼臨 ……予又致酹

載屹龜頭 浸不如占 ……<嶠南誌 五十一 陸墓>

① 「龜旨峯」과 ②의 「龜旨山」에서는 고유명칭 「龜旨」는 다름이 없다. ③의 「龜峯」은 建國보다 後代의表記이므로 「龜旨峯」의 생략이겠다. ④의 「龜岳」과 「龜頭」는 문학적 창작 표현이므로 지리적 명칭과는 다르다. 이리하므로 「龜旨峯」의 고유명칭 「龜旨」는 「龜」로 생략된 것은 보이나 다른 글자의 표기가 없으므로 앞서 언급한 차자표기의 차자표기로 보아 한자의 소리를 빌어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윤석호의 지명 해석이 타당한 해석이라 하겠다.

앞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윤석호는 「龜旨」는 「串, 岬, 加西, 古尸, 古斯, 嘉瑟」등으로 표기되는 「고지」 계통의 지명이며 '돌출해 나온 지형'에 붙인 것이라 하였다. 이런 지형을 한자로는 「岬」으로 쓰고 우리말로는 「고지」(串)라 하였는데 '고지 > 고시 > 곶'으로 소리가 변하였다.

이串(岬)의 이형태는 다음과 같다. 단 옛 지명의 이형태 '加西, 古尸, 古斯, 嘉瑟'은 다시 들지 않는다.

串(岬)

(옛 우리말) 고지 ~ 古斯也忽次, 甲比古次, 於乙買串(삼국사기 지리 四)

(현존 지명) 구지 ~ 금당구지<대부-남-중부흥>

고지 ~ 당고지(唐串)<화성-서신-전곡>

곶 ~ 장산곶(長山串), 월곶(月串), 전곶(箭串)<崔南善, 新字典「串」>

「龜旨峯」은 그 「구지」라는 지명으로 보아 지형이 들판 쪽으로 돌출해 나온 형상 때문에 이루어진 이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龜旨峯」으로 표기된 한자 「龜」(거북)과 들판으로 거북이 머리를 내민 듯한 형상 때문에 일찍부터 이 봉우리의 이름을 「龜旨」라고 한 것은 그 형상이 거북이와 같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龜旨(是峯巒之稱 若十朋伏之狀 故云也)<삼국유사, 가락국기>

‘이 봉우리를 「十朋」이 엮드린 모양과 같기 때문에 「龜旨」라 일컬었다’고 하

었는데 「十朋」은 「큰 거북」(大龜)를 뜻한다.⁷⁾ 「大龜」라 하지 않고 「十朋」이라 한 것은 주역(周易)에 근거한 풍수지리설적(風水地理說的) 표현이다. 뒷날에 편찬한 「慶尙道 邑誌」에서는 「분산(盆山) 중턱에서 서쪽으로 향하여 내려 었드린 것이 거북과 같다」고 하여 바로 「거북」(龜)이라 하였다.

自盆山中麓 西南降伏如龜<慶尙道邑誌, 金海府, 山川(亞細亞出版社 영인)>

그러나 이것은 이 산봉우리 이름의 바른 어원이 아니다.

2. 「거북노래」와 「바다노래」의 문제 고찰

「거북노래」와 「바다노래」를 비교해 보면 뼈대가 되는 노랫말이 서로 대응되는데 「바다노래」는 「거북노래」의 일부 낱말의 형태와 뜻이 조금 바뀌고 또 노랫말을 더 부연하여 만든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대응되는 구절은 다음과 같다. ()를 한 것은 더 늘인 부분임을 보인다.

<거북노래>	<바다노래>
① 龜何龜何	- ㉠ 龜乎龜乎
② 首其現也	- ㉡ 出水路 (掠人婦女) (罪何極)
③ 若	- ㉢ (汝)若(悖逆)

7)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龜旨峯」의 어원 설명에 있는 「十朋」에 대해서는 辺德珍은 「龜旨曲에 對하여」에서는 「漢書」, 「食貨志」의 설명을 들어 「十朋」은 거북의 비유라고 하였다. 그런데 「食貨志」의 「十朋」은 패물(貝)의 단위이다.

楊熙詒의 「麗洛國記」의 「龜旨曲」과 建國神話 研究에서는 「周易」의 「或益之十朋之重弗克違」의 「十朋」이라 하면서 주역의 이 구절의 해석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하나는 「二貝 一朋, 十朋 一龜의 大龜 또는 大寶」의 뜻 또 하나는 十朋 곧 十朋之龜의 생략으로 「神龜, 靈龜, 攝龜, 寶龜, 文龜, 筮莢, 山龜, 澤龜, 水龜, 火龜」 등 疑難을 決斷하는 靈物로 볼수 있다. 하였다.

④ 不現也

- ④ 不出獻

(入網捕掠)

⑤ 燔灼而喫也

- ⑤ 燔之喫

이처럼 「거북노래」와 「바다노래」가 대응되므로 「거북노래」의 표기 문체와 낱말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만약 「거북노래」 한 수 뿐이면 이해되는 내용이 꼭 그런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바다노래」에 대응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북노래」의 문체나 내용에 대한 해석을 「바다노래」를 대비함으로써 확인하고 입증할 수 있다.

①의 「龜何」의 「何」는 그 하나로는 「무엇, 어디, 왜 ……」 등 의문사로 해석된다. 그러나 ① 「龜乎」와 대응되므로 「乎」와 대응되는 뜻으로 해석해야겠다. 「乎」는 한자의 어조사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따라서 그것에 대응되는 「何」도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겠으므로 우리말의 옛 호격조사 「하」를 표기한 것을 알 수 있다.

②의 「首其現也」는 ①의 「出水路」에 대응되는데 ①은 한문 ‘동사 + 객어’의 구문이다. 그런데 ②는 ‘목적어(객어) + 동사 + 동사어미’의 우리말 순서로 되어 있다.

② 首其 ~ 現 ~ 也

① 出 ~ 水路

목적어 + 동사 + 동사어미

동사 + 객어

그리고 ②의 「首其」는 ①의 「水路」에 대응되어 비슷한 형태의 말임을 알게 하므로 다음처럼 해석된다.

首其(마리기) ~ 水路(물길)

따라서 「首其」의 표기는 한자의 뜻도 빌고 소리도 빌어 쓴 차자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북노래」에는 ②, ④, ⑤의 모든 월에 종결조사 「也」를 붙이고 있

다.

그러나 「바다노래」에서 종결조사가 없다. 「거북노래」의 종결조사 「也」는 우리말의 종결어미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거북노래」의 표기 문체는 다음같은 고이두문(古吏讀文)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하」(何)의 우리말의 호격조사를 표기하였다.
- ② 「首其 ~ 現 ~ 也」는 우리말의 순서대로 표기되어 있다.
- ③ 「首其」(마리기)는 한자의 뜻도 빌고 소리도 빌어 적었다.
- ④ 월 끝에는 꼭꼭 「也」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거북노래」는 고이두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바다노래」는 한문(漢文) 구문으로 되었으며 다음처럼 한시(漢詩) 칠언절구(七言絕句)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한시체(漢詩體)임을 알 수 있다.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者悖逆不出獻
入網捕掠矯之喫

고이두문(古吏讀文) <新羅統一前의 이두문> 종결어미는 「之」(다)가 쓰이고 뒤에 「也」(다)가 더러 쓰이였다. 신라 통일 전후에 쓰여진 향가(鄕歌)에서부터 이 종결어미는 「多」(다)나 「如」(다)로 바뀌었다.

丙戌十二月申 漢成下 後卽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고구려 성벽 각서, 446년)

(현) (지비) (다)

辛亥年 二月十六日 南山新城 作節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者

(지위) (로) (ㄴ)

罪數事 爲聞 敎令 誓事之(신라 남산 新城碑(591년))

(다)

辛未年 十中作城也(신라 명활산성 作城碑銘(551~611년))

(회) (다)

曄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삼국유사, 曄星歌(579~631년))

(여) (이)(이)(스)(다)

民是 愛尸 知古如(삼국유사, 安民歌(765))

(이) (르) (고)(다)

「之」와 「也」는 같은 형태의 표기임을 알 수 있는데 「也」가 쓰인 예는 8세기 후반의 금석문(金石文)에 두어군데 보이지만 삼국시대 쓰인 것은 이 「작명비명」에 쓰인 것이 유일한 것이다.⁸⁾

향가(鄕歌)는 신라 진평왕(579~631) 대의 「혜성가」(曄星歌) 한 수가 전하고 그 다음 문무왕(文武王)(661~697) 때부터는 전하는 수가 불어난다.

「거북노래」는 표기에 보수성을 보이는 금석문(金石文)이 아니므로 일반 가요인 향가(鄕歌)의 표기법의 영향을 쉽게 받을 것을 고려하면 종결어미 「也」가 쓰인 것을 보아 향가가 처음 지어지기 시작한 진평왕대(579~631) 곧 명활산성 「작성비명」이 쓰여졌던 시기에 적혀진 것으로 보겠다. 따라서 「거북노래」는 6세기 후반에 표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바다노래」는 그 가화(歌話)를 보면 신라 성덕왕(632~646)때에 불려진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때 그 노래를 표기하였다면 고이두(古吏讀)로 표기하였을 것인데, 향가로도 표기하지 않고 한시체(漢詩體)로 표기하였다. 우리말의 노래를 한시(漢詩)로 표기한 것은 고려에 와서다. 우리말의 노래는 고려시대에 와서도 균여(均如)의 「十願歌」(950년대)는 향찰(鄕札)로 표기하였는데 1100년대에 들어서서는 睿宗(1105~1122)이 悼二將歌를 鄕札로 짓고는 다시 四韻詩의 한시(漢詩)로 바꾸었고 赫連延은 「均如傳」을 지으면서 균여의 「十願歌」를 한시로 번역하여 우리말의 노래를 한시(漢詩)로 번역 표기하는 경향을 이루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바다노래」는 구전하여 오던 것을 고려 때 일연이 「三國遺事」(1285)를 지을 때 한시로 번역하여 실은 것으로 보겠다.

8) 南豊鉉(2000), 吏讀研究(태학사) P. 172

돌하 노피곰 도드사<악학계법 '井邑詞'>

대응구절 ② — 낱말 ①

<거북노래> <바다노래>

首其(마리-길) 水路(물-길)

「거북노래」의 「首其」는 표기된 글자대로라면 「마리-기」로 해독되나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면 「마리-길」로 해동된다.

① 「首其 ~ 現 ~ 也」의 뜻은 ‘옴추렸던 머리를 길게 펴어라’는 뜻을 나타낸 말이다.

② 「거북노래」의 「首其」는 「바다노래」의 「물-길」(水路)과 대응되므로 그것과 매우 닮은 말이겠으므로 「-기」는 「-길」일 수 있다.

「머리」(首)의 옛말은 「마리」이다.

頭曰麻帝<鷄林類事> 마리

髮曰麻帝核試<鷄林類事>마리가치

옷과 마리를 路中에 피아시눌<월인천강지곡>

마리 슈(首)<字會上 24, 類合上 20>

「마리-길」은 옴추렸던 머리를 길게 펴는 것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된다.

현대어에서 「-길」은 움직이는 몸의 부분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 그것을 펴는 상태나 편 상태를 나타낸다.

발(足)-길 발길을 멈춘다. 발길로 찬다.

손(手)-길 손길 닿는 곳에 놓아라. 손길을 뻗친다.

「-길」은 그 어원이 「길」(長)에 있는 것으로 ‘길게 하는 것’을 뜻한다. 거북은 껍질 안으로 머리를 옴추렸다. 폼다 하는데 거북이 머리를 펴서 길게 하는 것

을 「머리길」이라 한 것 같다. 「마리 길」을 정확하게 표기하자면 종성 「-ㄹ」을 살려 「首其尸」(마리길)로 하여야 하나 종성 「-ㄹ」을 생략하였는데 그러한 ‘중성 생략 표기’는 다음 같은 예에서도 발견된다. 왼쪽처럼 적고 오른쪽처럼 읽었다.

東京 明期 月良<삼국유사, 「處容歌」> 明期(발그) ~ 明期隱(널근)
 (東京 널근 돌아)
 爲乎<吏讀> 爲乎(호오) ~ 爲乎隱(호은)
 (호은)

「期」는 동음이 「기」이나 고대의 차자표기에서 「ㅣ」가 뒤선 복합모음의 한자음에서 「ㅣ」를 생략한 소리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期)로 표기한 것으로 해독된다.

買省郡 一云 馬忽<삼국사기, 地理> 賈(미) ~ 馬(마)
 大谷郡 一云 多知忽<삼국사기, 地理> 大(대) ~ 多(다)
 客連郡(客 一作 各)<삼국사기, 地理> 客(객) ~ 各(각)

대응구절 ② 一 낱말 ②
 <거북노래> <바다노래>
 現(나토-) 出(나토-)

「바다노래」의 노랫말은 가화(歌)의 내용 때문에 「거북노래」와 소리의 형태나 뜻이 약간 변했겠으나 「거북노래」와 대응하므로 두 낱말의 소리 형태가 매우 비슷할 것이다.

「나타나」(現)의 옛말은 「나토-」(現)이다.

靈妙한 法을 나토며<식 十三33>
 부더 나샤물 나토아<曲 23>
 나토려 호시는 전촉로(顯明故)<능 一 79>

나를 덩(呈)<類合下 32>

서로 대응되는 낱말은 같은 형태의, 같은 뜻의 낱말이겠는데 출수로(出水路)<물길에 나타나>의 출(出)은 출현(出現)<나타나->의 뜻이므로 이 또한 「나토-(現)」이겠다.

대응구절 ② — 낱말 ③

<거북노래>	<바다노래>
也(라)	(없음)

「也」는 우리말의 종결어미를 표기한 것이다. 한문(漢文)에는 종결어미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며 특히 한시(漢詩)에는 종결 어조사를 꼭히 필요하지 않는 이상 붙이지 않는다.

「首其 ~ 現 ~ 也」의 월의 뜻으로 보아 「也」 종결어미는 명령종결어미다. 그러므로 「也」는 「라」로 해석된다.

대응구절 ③ — 낱말 ①

<거북노래>	<바다노래>
若(ㅎ다가)	若(ㅎ다가)

조건이나 가정의 월을 이끄는 부사로서의 우리말은 15세기어가 「ㅎ다가」이다.

ㅎ다가 有情이 邪曲헌 道理 行ㅎ리 잇거든<석 九 5>

ㅎ다가 이 經에(若於是經)<능 一 3>

ㅎ다가 이시면(若在)<杜초 八 42>

대응구절 ③ — 낱말 ②

<거북노래>	<바다노래>
不(안둘)	不(안둘)

현대어에서는 부정부사는 「아니」 또는 「안」이나 고대어에는 「不冬」(안돌)이다.

秋察尸 不冬 爾屋支墮米(삼유, 怨歌)

(ㄱ을 안돌 이붓디디)

不冬 菱玉 內乎留叱等耶<균여, 恒順衆生歌>

(안돌 이오 느오르스들야)

不冬 안돌<吏文, 二便>

대응구절 ③ — 날말 ④

<거북노래>

<바다노래>

也(라)

(없음)

거북노래의 「若不現也」의 「也」는 우리말의 종결어미이다. 그러므로 한문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되므로 없다.

그런데 이 「也」는 「若不現」(만약 나타내지 않으면)이라는 조건과 가정을 나타내는 종속절의 어미이므로 연결어미 「~면」으로 해독하기도 하나 고이두(古吏讀) 「也」는 종결어미 「-다, -라」지 연결어미 「-면」이 아니다. 그러므로 「也」는 종결어미 「-다」나 「-라」로 해석해야 한다. 조건이나 가정을 표현법을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만약 나타내지 않으면 굶고 지저 먹겠다.

㉡ 나타내지 않지만 해라. 굶고 지저 먹겠다.

㉢ 안 나타나 봐라. 굶고 지저 먹겠다.(경상도 방언 표현)

「若不現也」는 종결어미 「也」(-다, -라)를 보면 ㉡나 ㉢의 표현법이다. 따라서 「也」는 「-라」로 해독된다.

그런데 「若不現也」를 고대어로 그대로 해독하면 다음처럼 긴 월이 된다.

- (d) 하다가 안돌 나토기만 허라
- (e) 하다가 안돌 나토아 보아라
- (f) 하다가 안돌 나뵤 뵤라

가장 짧게 표현된 (f)도 다음 (A)와 같은 그 앞의 음수물에 맞지 않는다. 단 「하다가」(若)를 빼면 (B)와 같이 6음절이 되어 그 앞의 노랫말과 음절수가 같게 된다.

- (A) 거북하 거북하
 머리길 나토라
- (B) 안돌나뵤 뵤라

우리말의 가정문이나 조건문 표현에는 가정부사 「하다가」(현대어로는 「만약, 만일」 등)를 쓰지 않음이 일반적이므로 「하다가」(若)가 없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런데 한문(漢文)으로 번역한 원문에는 「不冬」의 「돌」(冬)이나 「뵤라」의 가정문 구성을 위한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안돌 나뵤 보아라
| | | | |
不() 現 () (也)

그 이유는 「若不現」은 우리말의 표현이 아니고 한문(漢文)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말 표현요소들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가(鄕歌)를 표기한 향찰(鄕札)은 우리말을 그대로 표기하였으나 이두(吏讀)는 한자어(漢字語)나 한문(漢文) 구절을 그대로 사용함이 특징이다. 다음 예의 위에 점을 친 말은 한문 어순으로 되어 있다.

自此 下 向東 十二里<高句麗 石壁 刻書>
여기부터 아래에 동쪽을 향하여 12리

節居利 若先死後 令其弟兄斯奴 得此財耳<冷水里 新羅碑銘>

節居利가 만약 먼저 죽은 뒤에는 그의 아우 斯奴로 하여금 이 재물을 받게 한다는 지시를 내린다.

또 한문체(漢文體)인 「바다노래」와 그 표현이 같은 것은 한문체적 표현임을 입증한다.

(거북노래)	若 不 現
(바다노래)	汝若悖逆不出獻

대응구절 ③ — 낱말 ③

<거북노래>	<바다노래>
現(나토-)	出獻(나소-)

‘거북노래’에서 「現」은 이미 「나토-」로 해독하였다. 그런데 ‘바다노래’에서는 「出獻」으로 대응되고 있다 이 말은 노랫말로써 ‘거북노래’의 「나토-」(現)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거북노래’의 해독을 보아서 한 글자로 충분하나 ‘바다노래’의 칠언절귀(七言絶句)의 시(詩) 형식에 맞추기 위해서 「출(出)」을 더 붙여서 늘인 것으로 보인다.

「獻」은 「바치-」(奉)의 뜻이나 거북노래 「나토-」와 대응되므로 그것과 수나 형태가 아주 비슷한 낱말이었을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보면 옛말 「나소-」(進上, 饋)로 해독된다.

내 이 고줄 나소리니(月— 11)
 잔 자바 나소마<朴초上 48>
 네 나물 나소와(你饋我)<朴초上 18>

대응구절 ⑤ — 낱말 ②

<거북노래>	<바다노래>
--------	--------

燔灼而喫(굽지저 먹-) 燔之喫(굽어먹-)

「거북노래」에 한문의 접속사 「而」를 쓴 것은 한문체(漢文體)로 바꾸어 쓴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한편으로 우리말에 연결어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燔灼」는 「굽-」(燔)과 「지저-」(灼)의 두 동사가 결합한 것인데 그 사이에는 접속사 「而」가 없는데 접속사 없이 두 어간이 결합한 복합어 「굽-지저」임을 보이고 이 「굽지저」와 「먹」(喫) 사이에는 연결어미 「-어」가 있는 것을 표기하여 한자어 「而」를 쓴 것으로 보인다.

굽-지저-어 > 굽지저
| | |
燔 灼 而

대응구절 ④ — 날말 ②

<거북노래>	<바다노래>
也(올래)	(없음)

구절 ④의 끝 「也」는 앞뒤 구절의 뜻을 보아 의지를 표하는 어미로 해독되며 특히 노랫말로서의 음수물로 보아 다음처럼 「올래」로 해독된다.

燔灼而喫也
굽지저 먹올래

「야」로 표기된 다른 어말어미는 「라」로 해독되는데 이 때의 어미 「也」는 「래」로 해독되나 한자의 빌어적기에 있어서는 「라」의 소리를 빌어적은 것일 수 있다. 그것은 고래 국어의 「H」[ai] 복모음은 그 끝소리 「l」[i]를 생략하고 다음처럼 「ㅏ」로 적기도 하기 때문이다.

素那 或云 金川<삼국사기, 烈傳 七>
金川(쇠내) ~ 素那(소나)

위에서 해독한 ‘거북노래’와 ‘바다노래’가 대응하는 내용의 해독을 정리하고 ‘바다노래’의 빠진 해독은 그것을 고려하여 해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거북노래>	<바다노래>
거북하 거북하	거북하 거북하
머리길 나토라	물길에 나토아 (남 가시 자본 죄) (언마나 한다)
안돌 나봐 보아라	안돌 나봐 보아라 (거물로 잡아서)
굽지저 먹을래	굽어서 먹을래

‘바다노래’의 해독에서 ()를 한 것은 ‘거북노래’와 대응되지 않는 부분으로 설화의 내용에 따라 더 내용을 확장한 것이다.

「掠人婦女」에서 「人」을 「남」, 「婦女」를 「가시」로 해독하였다. 「人」은 직역하면 「사람」이었으나 내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부인’이란 뜻으로 쓰인 말이므로 원래 우리말은 「남의 부인」으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婦人」은 한 자어고 고어에는 「가시」(妻, 婦人)라는 말이 쓰이었으므로 「가시」로 해독한다.

妻는 가시라(月釋一 12>

가시며 子息이며 도라 향야도<月釋一 13>

「罪何極」에서 「何」는 옛말의 형태 「언마나」로 해독하고 「極」은 「많으나?」의 옛말 「한다」(「하」(多) + 「다」(의문어미))로 해석하였다. ‘바다노래’의 한역시(漢譯詩)에서 「極」(지극하다)을 쓴 것은 칠언절귀의 운자(韻字)로 「喫」(긋)과 입성운(入聲韻)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이고 원래의 말은 「많으나」의 말이겠다.

「汝若悖逆 不出獻」은 ‘거북노래’와 대응시켜 보면 「汝」, 「悖逆」이 칠언절귀의 한시체(漢詩體)에 맞추기 위해서 부연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다노래)	汝若悖逆 不出獻
(거북노래)	若 不 現也

「入網捕掠」은 앞뒤의 노랫말의 음수물에 맞추어 보면 원래 노랫말은 「거물로 잡아서」(網捕)의 뜻인데 칠언절구의 한시(漢詩)의 형식에 맞추려고 글자를 늘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의 노랫말로 해독된 ‘거북노래’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동요」(童謠)이나 강가에서 아이들이 머리와 발, 꼬리를 집질 속으로 옴추려 들인 거북이를 두고 머리를 내어라고 올려대는 노래이다. 아이들이 동물을 두고 위협을 가하는 동요는 더러 있다. 다음과 같은 동요도 그러한 것이다.

칠기야 칠기야
 앉은 자래 꿀꿀
 천리밖에 나가면
 니 모가지 똑딱(경상도 동요)

「칠기」는 「잠자리」의 방언이다. 아이들이 잠자리를 잠으려고 날아가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위협하는 노래이다.

IV. 가화(歌話)의 비교

노래가 있고 그 노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경우 그 이야기를 가화(歌話)라 한다. 이런 가화로 된 이야기를 가화적설화(歌話的說話)라 한다. 가화적설화는 민담으로 현대까지 전하고 있는데 고려시대는 크게 유행한 것 같다. 일 연은 그가 지은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많은 가화적설화를 채록했으며 그는 그가 채록한 담화적설화(談話的說話)의 끝에 한시(漢詩)를 만들어 붙여 가화적설화를 만들기도 하였다.

가화적설화에는 한 개의 가화로 된 단독가화적설화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

는 한 주제 아래 여러 개의 가화적설화가 연합(聯合)되어 있는 연합가화적설화도 있다.

‘거북노래’는 원래 가라(加羅) 초대 왕의 추대식을 기술한 역사적 기사에 끼어 있던 것이 뒤에 신화적사화(神話的史話)로 바뀌고 다시 가화적설화가 된 것이다.

‘거북노래’의 가화는 다음과 같다. 수로(首露)가 하늘에서 내려와 왕이 되는 신화(神話)이다.

목욕하는 날에 그곳 북쪽 구지(龜旨)<이것은 산봉우리의 이름이니 十朋(“큰 거북”)이 었드린 형상과 같으므로 龜旨라 한 것이다>에서 무엇을 부르는 수상한 소리가 났다. 사람 무리가 이삼백명이 이곳에 모이니 사람의 소리는 나는 듯하되 그 형상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내어 말하기를 “여기에 사람이 있느냐?”하였다. 9한(干)들이 이르되 “우리들이 여기 있다”하였다. 또 말하기를 “여기가 어디냐?”하여 “구지(龜旨)다”고 대답하였다. 또 말하되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 하였으므로 이곳에 일부러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산봉우리 꼭지를 파서 흙을 모우고 노래를 불러서 ‘거북아 거북아 마리길을 나토라 안돌 나와 보아라 급지져 먹울래’라고 이르면서 뛰고 춤추어라 바로 이것이 대왕(大王)을 맞이하여 기뻐하며 땀땀이라”하였다. 9한(干)들이 그 말대로 하여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었다.

얼마 아니하여 쳐다보니 자주빛 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았다. 줄의 아래쪽을 찾아보니 붉은 폭에 금합(金合)이 쌓여 있었다. 열어보니 황금(黃金)의 알이 6개 있는데 둥글기가 해와 같았다. …… 사람의 무리가 다시 서로 모여 함(合)을 여니 여섯 알이 변하여 어린 아이가 되었다. …… 나날이 자라 십여일을 지나니 키가 아홉 자나 되었다.

…… 그 달 보름에 즉위하였다.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휘(諱)를 首露라 하였는데 혹은 首陸(首陸은 죽은 뒤의 호이다)이라 하였으며 나라를 大駕洛, 또는 伽耶國이라고도 일컬었으니 六伽耶의 하나이다. 나머지 다섯 사람은 각각 가서 다섯 伽耶의 임금(王)이 되었다.(삼국유사, 駕洛國記)

위 설화에서 「거북노래」는 노동요(勞動謠)로 불리었다. 무리의 사람들이 지

시대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산봉우리 꼭지를 파서, 흙을 모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뛰고 춤추었다.

(掘峯頂, 撮土, 歌之 …… 以之蹈舞)

노래를 부르면서 뛰고 춤춘 것은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파서 두텁게 쌓아 둔 것을 평평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다. 다지는 노동 때 ‘거북노래’를 불렀으므로 노동요로 불리어진 것이다. 이러한 유로 오늘날도 달구질할 때 부르는 ‘달구노래’가 있다. 특수한 노동에 특수한 노동요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하는 일꾼들이 아는 아무 노래나 부른다. 또 특수한 노동에 특수한 노래가 생긴 것은 후대의 일이다. ‘거북노래’는 제단을 만드는 달구질에서 노동요로서 동요가 불리어진 것이다. 그런 장시간의 노동에서 여러 가지 노래가 불리어졌을 것인데 구태어 ‘거북노래’만이 설화에서 전해진 것은 어떤 연유가 있겠다.

‘거북노래’가 이 가화적설화에 취택된 것은 「龜旨峯」의 「龜」의 민간어원적 해석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가락국기의 「龜旨」의 주석이다. 「龜旨」를 주석하여 「十朋」(큰 거북)의 모양이므로 그 이름을 「龜旨」라 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 ‘거북노래’를 끌어들인 연유를 알 수 있다.

「바다노래」는 남편을 따라 경주에서 강릉까지 동해안의 「물길」(水路)을 따라 긴 여행을 하였던 「水路夫人」(물길가시)를 주인공으로 한 가화적설화인데 노래가 다른 여러 가지 가화를 모아 엮은 연합가화적설화이다.

(A) 성덕왕때 순정공(純正公)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었다. 곁에 돌 산봉우리가 있어 병풍과 같이 바다를 둘러했는데 높이가 천길이나 되고 그 위에는 철쭉꽃이 한껏 피어 있었다. 공의 부인이 좌우에게 “누가 저 꽃을 꺾어 오겠느냐”하니 종자들이 대답하되 사람의 발자취가 이르지 못하는 곳이라 하여 모두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곁에 한 늙은이가 암소를 끌고 지나다가 부인의 말을 듣고 꽃을 꺾어 주며 가사(歌詞)를 지어 함께 바치었는데 그 늙은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
- (B) 그 후 무사히 길을 가서 이들이 되는 날에 또 임해정(臨海亭)이라는 곳에서 점심을 먹는 중에 바다의 용(龍)이 갑자기 나타나 부인을 끌고 바다속으로 들어갔다. 공이 넘어져서 땅을 발로 굴렀으나 제책이 없었다. 또 한 늙은이가 있어 이르되, “옛날 말에 여러 입은 쇠도 녹인다 하니 지금 바닷속의 짐승인들 어찌 여러 입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경내의 백성을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로 바다 기슭을 치면 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였다. 공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용(龍)이 부인을 받들고 바다에서 나와 바치었다.
- (C) 원래 「水路夫人」(물길가시)은 절세의 아름다운 얼굴이라 매양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자주 신물(神物)에 부딪임을 당하였다.

(삼국유사, 「수로(水路)부인(夫人)」)

윗글의 (A)는 「獻花歌」(꽃바침 노래)의 가화이고 (B)는 「海歌詞」(바다노래)⁹⁾의 가화이다. 이 두 가화는 각각의 노래의 형식이나 내용이 완전히 다르고 그 가화의 내용도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나 「水路夫人」(물길가시)의 여행담(旅行譚)이라는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연합가화적설화이다. 「水路夫人」의 연합가화는 윗글 (C)로 보아 원래는 훨씬 더 많은 가화로 구성되어있던 것을 알 수 있다.

(B)의 「바다노래」(海歌詞)의 이야기는 「구토설화」(龜兎說話)가 변형된 것이다. 그 변형은 다음처럼 되었다.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바다노래 이야기>

(잡을려고 하는 이)	용(龍)	} - 거북(龜) = 용(龍)
(심부름꾼)	거북(龜)	

9) (A)의 설화에 딸린 노래는 다음처럼 「海歌詞」라 하였다.

衆人唱海歌詞曰<삼국유사, 「水路夫人」>

(못 사람이 「바다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는라고 하였다.)

(B)의 설화에 딸린 노래는 다음처럼 「獻花歌」라 하였다.

老人獻花歌曰<윗 책의 같은 글>

(늙은이가 꽃을 바치면서 노래하되라고 하였다.)

(잡히는 이)

토끼(兔) --- 여자(夫人)

‘토끼와 거북 이야기’에서는 ‘잡으려고 하는 이’와 ‘심부름꾼’이 용(龍)과 거북(龜)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데 ‘바다노래 이야기’에서는 ‘거북(龜)’과 ‘용(龍)’이 같은 신물(神物)의 두 이름으로 되고 ‘잡히는 이’는 ‘토끼와 거북 이야기’에서는 토끼(兔)인데 ‘바다노래 이야기’에서는 여자이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변형된 ‘바다노래 이야기’에서 ‘거북노래’를 끌어 들인 것은 그 설화에 나오는 거북(龜) 때문이겠다. 그러나 ‘거북노래’가 ‘바다노래 이야기’의 노래로 되면서 그 가화(歌話)의 내용에 따라 일부 노랫말을 변화시키고 노랫말을 더 추가시켜 늘었다.

위와 같은 가화의 비교에서 ‘거북노래 이야기’와 ‘바다노래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해서 다음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거북노래 이야기’의 주인공은 ‘수로’(首露)이다.
- ② ‘바다노래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길가시’(水路夫人)이다.
- ③ ‘수로’(사람 이름)와 ‘물길’(물가로 난 길)은 다른 말인데 ‘물길’을 한자어로 바꿔 ‘水路’라 함으로써 ‘수로’와 같은 소리의 말이 되었다.

따라서 ‘거북노래 이야기’와 ‘바다노래 이야기’의 주인공의 이름은 원래 판계가 없는 것이다.

V. 결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여 다음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건국신화인 가화에 근거하여 「龜旨峯」과 「龜何」의 「龜」를 「검」(神)으로 해석하거나 지명 해석을 통하여 龜, 海, 龍은 kara, ker, kur의 소리를, 首路, 水路는 mere, mari의 소리를, 金卵, 許는 k~r/kə의 소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 어원적으로 소리가 같은 말의 다의어로 해석하여 건국신화인 가화에 맞는 해석을 시도한 바 있지만 그것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해석이 아니고 가화에

맞추려는 의도적인 해석이다.

‘구지봉’이라는 산명과 ‘거북노래’의 내용은 가화의 건국신화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학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구지-봉’의 「龜旨」는 차자표기인데 문헌에 소리나 뜻이 다른 표기가 따로 없고 구전하는 산명으로도 ‘구지’ 외에 다른 이름이 없으므로 차자표기의 원칙상 한자의 소리를 빌어 적은 것이다. 「龜」로 적은 것은 뜻이 좋은 글자를 취했을 뿐이다.

‘거북노래’는 그것 한 수만 전했다면 표기법의 성격이나 노래의 뜻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인데 같은 내용이면서 노래 가사가 확장된 「바다노래」가 있어서 이 둘을 비교해서 표기 문체와 표기된 노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열렸다.

‘바다노래’는 칠언절구의 한시이고 ‘거북노래’는 고이두체의 우리말 노래이다. 내용이 거의 같으므로 노래로서의 운율을 고려하고 또 우리말의 옛말을 함께 고려하면 ‘거북노래’의 옛 모습을 거의 살려낼 수 있다.

그리고 ‘거북노래’의 표기 글자나 문체로 보아서 노래가 정착된 연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시기는 대체로 6~7세기에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거북노래’는 뒤에 가화적 설화에 이용되었는데 먼저 가화적 설화의 형식을 취한 가야 건국신화에 이용되었고 뒤에는 가화적 설화인 ‘수로 부인’(물길로 여행한 부인) 설화에 이용되었다. 그러므로 가야 건국 시조 ‘首露’와 물길로 여행한 부인인 ‘水路’ 부인의 ‘수로’가 같은 소리이기는 하나 그 둘은 다른 설화의 다른 주인공이다.

주제어 : 건국신화, 이두, 고대가요, 구지봉, 지명

참고 문헌

일연(1285), 「삼국유사」, 민족문화추진회 영인

- 금유, 김빈 주관(1425), 「경상도 지리지」, 아세아문화사 영인
- 김택강상량(1929), 「일선동조론」, 도변서관, 일본
- 양주동(1943), 「조선고가연구」, 박문서관
- 박지홍(1957), “구지가 연구”,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 황폐강(1965), “구하가 고”, 「국어국문학」 29, 국어국문학회
- 변덕진(1970), “구지곡에 대하여”, 「효성여대 논문집」 6·7집, 효성여자
대학 출판부
- 이정호(1980), 「주역강의」, 아세아 문화사
- 김학성(1980), “고대 출산제의의 일 유형”, 「한국 민속학」 12, 한국민속
학회
- 정병욱(1981), 「한국고전시가론」, 신구문화사
- 양희철(1987), “가락국의 ‘구지곡’과 건국신화 연구”, 「가라문화」 5, 경
남대학교 가라문화연구소
- 윤석효(1990), 「가야사」, 민족문화사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이 논문은 2003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5월 2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6월 3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